

미국의 대중(對中) 관세인상에 따른 영향 점검

- 최상목 부총리,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국 경제·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, 대응방향 논의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.21(화) 8:30,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의 대중(對中)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·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. 대외경제자문회의*는 세계(글로벌)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.

- * (1차) 글로벌 경제현안 및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논의(4.4)
- (2차)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(4.23)

<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4.5.21(화) 08:30 / 정부서울청사
- 주제 : 미국의 대중(對中)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·통상 현안
- 참석 : (기재부) 부총리, 국제경제관리관, 대외경제국장 등
(전문가)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,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

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불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·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 이에 대응하여 과거 무역분쟁 사례, 미·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는 한편,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,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,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, 중국측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
최 부총리는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.

총괄	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 (044-215-76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형 (sanghyeong@korea.kr)
			사무관	홍가람 (ddallokx2@korea.kr)
			사무관	이동휘 (hui1219@korea.kr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